

日本 북알프스의 感懷

李 基 浩

우리나라 산처럼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산이 많고 신묘하게 생긴 우리나라에 태어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매주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엘가면 성당이나 대학강의실에 온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산은 말없이 사랑과 교훈을 저에게 줍니다. 저는 모든 사랑과 정신적인 애정을 받으며 무계획적인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험악한 산길, 조용한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도착한 후의 감회! 언제나 육체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하며 고귀한 정신을 배우며 견고건는 삶에서 모든 인생의 고귀한 정신을 배웁니다.

미지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에서 오른산은 어려움과 힘든일을 하며 새로운 즐거움과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보존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구름한점 없이 맑은하늘 햇볕머금은 바위는 몽클한 의욕을 솟구치게 합니다. 산은 엄숙하고 겸허한데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옛부터 산악승배 사상이 있습니다. 인도인은 수미산을 그리스인은 올림프스산을 일본인은 다카찌오산을 그들의 聖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白頭山靈峰을 비롯하여 금강, 묘향, 한라, 지리, 설악등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저는 일본에가서 북알프스를 탐방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서로 격려의 인사를 하

는 예의바른 자세를 보고 배울것이 많구나! 감복하였으며 쉬는곳마다 休紙나 담배꽂초 하나없이 깨끗한 청결성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설악이나 북한산의 쉬는곳에는 지저분한것이 무척 많고 더욱이 인체에 해로운 건전지등을 버린것을 보고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산악문화를 위해 산을 깨끗하고 동식물을 사랑할것을 후배들에게 지도하여야겠습니다.

산에 관계되는 세계명작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인상깊은 책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인상깊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뿐만아니라 모든 기업체들은 우리의 산야를 아끼는데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면 등산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산정의 아름다움도 중간의 풍경도 힘겨운 고난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친밀감도 모두 자연과의 우정없는 무미 건조한 것입니다.

산은 오를수록 자연의 장엄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감히 접근키 어려운 험준하고 기품높은 봉우리는 조심스런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는 오를수 없습니다. 미지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에서 오른산은 어려움과 힘든일을 하며 새로운 즐거움과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산과계곡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인간의 생명은 기적해야 70이나 80세로 끝나지만 산과 계곡은 영원히 우리 후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우리는 후세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셈입니다.

〈筆者：本會 會員〉